

車·조선 실적 ‘양호’ 예상… 하락하던 증시, 반등 시그널?

주요기업 1분기 실적발표 시즌

현대차 영업이익 전년비 1.05% 증가
HD한국조선·한화오션 등 조선업
영업익 각각 217%·175% 급증
“1분기 실적 받쳐주면 반등 가능성”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그룹,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1분기(1~3월) 실적을 발표한다.

올해 1분기는 도널드 트럼프발 ‘관세 전쟁’과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공포 및 경기 둔화 등 경영 악재가 한꺼번에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상당수 기업은 부진한 실적을 예고하고 있다. 그만큼 실적 호전 기업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커질 전망이다.

미국발 영향도 예상된다. 이번주 대형 기술주 그룹 ‘매그니피센트’ (M7) 7종목 중 테슬라와 알파벳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다.

◆차·조선 ‘양호’, 철강 ‘부진’ 예상

2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를



Chat GPT가 생성한 기업 실적 관련 이미지.

보면, 20여개 증권사가 예측한 1분기 현대차의 매출액(증권사 평균, 연결 기준)은 43조3323억원, 영업이익은 3조5945억원이다. 전년 같은 기간에 견줘 6.58%, 1.05% 증가한 수치다. 기아는 매출액이 전년보다 5.41% 늘어난 27조6321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05% 감소한 3조2528억원이다.

2분기 이후 실적은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미국이 이달 3일부터 수입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붙이고 있어서다.

신한투자증권은 “현대차의 1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며, 2분기부터는 미국 관세 충격이 서서히 나타날 것”이라며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전년에 견줘 5.4%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선업도 1분기 호실적이 예상된다. HD한국조선해양의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6조6789억원과 5079억원으로 전년에 견줘 21.09%, 217.08%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화오션 역시 매출액은 33.85% 늘어난 3조567억원,

영업이익은 175.57% 급증한 1459억원으로 점쳐지고 있다.

조선업은 자동차와 달리 호실적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이 한국에 조선업 협력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은 “미국의 조선업 재건 정책은 한국 조선사에 큰 기회”라며 “실적 개선이 2027년까지 이어지는 것은 물론 그 이후로도 확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철강은 1분기 부진한 성적이 예상된다. 증권가가 예측한 포스코홀딩스의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7조8029억원, 5573억원이다. 전년보다 1.38%, 4.41% 감소한 수치다. 현대제철의 실적 전망치는 매출액이 6.49% 줄어든 5조5615억원, 영업이익은 95.60% 감소한 25억원이다.

미국은 지난달 12일부터 수입산 철강에도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낮아진 관세 민감도, 1분기 실적에 주목

조준기 SK증권 연구원은 “관세 쪽 잡음이 계속되었지만 정점을 찍었다면 기존에 시장이 신경을 썼어야 할 것들

에 대한 민감도 올라갈 시점으로 판단한다”며 “이번 주에는 주요국 구매관리자지수(PMI) 제외하면 경제지표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며 실적에 시장 관심도 올라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증시 이익추정치는 반년 가까이 이어지던 가파른 추경치 하향 조정 추세를 멈추고 3월 중반부터는 소폭 반등한 상태”라며 “이미 시장 눈높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낮은 기대치를 충족시킬 정도의 숫자만 제공된다면 시장도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 높다”고 전망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관세, 매크로 이벤트도 중요하지만 관세가 주식 시장에 초래한 직접적인 부작용은 실적 전망의 불확실성이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실적 시즌이 중요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도 “이번주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1분기 실적만 잘 받쳐준다면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미래운용 호주 ETF자회사, 운용자산 9조 돌파

‘글로벌엑스 오스트레일리아’ 상위 5대 운용사 반열에 올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호주 ETF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자회사 글로벌엑스 오스트레일리아(Global X Australia)의 운용자산(AUM)이 100억 호주달러(약 9조원)를 돌파하며, 뱅가드·베타셰어즈 등과 함께 상위 5대 운용사 반열에 올랐다.

세계 최초 금 현물 ETF를 출시한 원자재 ETF 강자로 출발해, 최근에는 테마형과 채권형 등으로 상품군을 확대하며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1일 “지난 2022년 6월 인수한 ETF 전문 운용사 ‘ETF 시큐리티즈(Securities)’를 글로벌엑스 오스트레일리아로 리브랜딩한 이후 총 43개의 ETF를 운용하고 있으며, 최근 AUM이 100억 호주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인수 당시인 2022년 6월 46억4000만 호주달러였던 운용자산은 지난해 말 91억3000만 호주달러로 급증한 데 이어 최근 100억 호주달러를 돌파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엑스 오스트레일리아는 뱅가드(Vanguard), 베타셰어즈(Betashares), 아이셰어즈(iShares), 반에크(VanEck)에 이어 호주 ETF 시장 내 5위



호주 증권거래소(ASX)에서 글로벌엑스 오스트레일리아의 ‘Global X Gold Bullion Currency Hedged (GHLDAU)’ 신규 상장을 기념해 진행된 오프닝벨 세레모니를 진행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운용사로 자리매김했다.

글로벌엑스 오스트레일리아는 전통적으로 원자재 ETF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금 투자 수요를 겨냥한 다양한 ETF 라인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 최초 금 현물 ETF인 ‘Global X Physical Gold Structured(GOLD AU)’를 비롯해 ‘Global X Gold Bullion(GXLD AU)’, ‘Global X Gold Bullion Currency Hedged(GHLDAU)’ 등을 보유하고 있다.

또 글로벌엑스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테마형, 인컴형, 채권형 등 혁신

상품도 적극 도입 중이다. 미국 시장에서 인기를 끈 상품을 호주에 처음 도입한 ‘Global X Artificial Intelligence(GXAI AU)’, ‘Global X Defence Tech(DTEC AU)’ 등이 대표적이다.

글로벌엑스 오스트레일리아는 향후 코어(Core) ETF 상품을 강화하고, 미래에셋의 로보어드바이저 운용사인 호주 ‘스탁스팟(StockSpot)’과 협력해 현지 연금시장 공략에도 나설 계획이다.

알렉스 자이카(Alex Zaika) 글로벌엑스 오스트레일리아 대표는 “호주 투자자들에게 더욱 경쟁력 있는 상품을 제공하고, 특히 연금 투자자들의 장기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KB증권 프라임센터, 연간 4.4만명 상담

오픈 5주년 성과

KB증권은프라임(Prime)센터 오픈 5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고객 중심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21일 밝혔다.

KB증권은 전문가와 직접적인 상담을 통해 자산관리에 깊은 조언을 얻고자 하는 고객의 니즈를 감안해 2020년 2월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Prime센터를 처음으로 오픈했다. ‘누구나 전화 한 통이면 PB와 손쉬운 비대면 상담’을 목표로 오픈한 지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에게 주식과 금융상품은 물론 세무, 부동산, 연금 등 비대면 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KB증권에 따르면 2024년 연간 Prime센터를 통해 비대면 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은 4만4000여 명으로 Prime 프라이빗뱅크(PB) 한 명이 연간 1000여 명의 고객과 상담을 진행한 셈이다. 비대면 상담 서비스 이용 고객의 계속되는 증가는 2022년 7월, 강남구 대치동

에 Prime2센터를 추가로 오픈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Prime센터는 고객이 선호하는 특정 Prime PB와의 지속적인 상담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객은 익숙한 PB와 투자 및 자산관리에 보다 깊이 있는 상담이 가능하며, 전담 PB를 지정한 고객은 지난해 말 기준 8000명을 넘어섰다. 전체 상담 내용 가운데 주식과 금융상품 투자가 85% 이상을 차지했고, 작년에는 ‘밸류업’ 관련 상담이 전체 10.1%를 기록했다.

최근에는 연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비대면을 통한 연금 관련 상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난 3월, Prime센터 내에 ‘연금자산관리센터’를 별도로 신설했다. 연금자산관리센터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아우르는 3층 연금 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며, 고객이 전반적인 연금 제도와 세제 혜택을 이해하고 은퇴 후 자산운용 전략까지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신하은 기자 godhe@

코스콤, 장애인 예비창업자 5000만원 후원

푸르메재단에 전달

코스콤은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장애인 예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후원금 5000만원을 푸르메재단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코스콤이 후원하고 푸르메재단이 함께 하는 ‘장애인 IT 창업 아이템 공모전’은 IT 분야에서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예비 창업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을 통해 코스콤과 푸르메재단은 공모와 심사 과정을 거쳐 멘토링까지 다방면으로 장애인 예비 창업자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1기에 선정된 5개팀 중 우수 3개팀은 후속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창업 컨설팅을 받고 있다. 이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2기는 1기와의 활발한 네트워크 프로그램도 받을 예정이다.

공모전 기금은 장애인 예비 창업자들에 사업지원금을 제공해 이들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데 사용된다.

/신하은 기자 godhe@

이오타서울 우선협상 대상자에 ‘리츠칼튼’

이지스운용, 개발 연면적 46만㎡

이지스자산운용은 옛 남산 힐튼호텔 부지 일대에 조성되는 대형 복합단지 ‘이오타서울’의 호텔 운영 우선협상 대

상자로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의 ‘리츠칼튼’ 브랜드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서울역 맞은편 옛 남산 힐튼호텔 부지 일대를 글로벌 수준의 랜드마크로 개발하는 것으로, 이지

스자산운용과 현대건설이 사업개발 주체 및 시공사로 참여한다.

지하 10층~지상 39층 규모의 오피스와 호텔을 비롯해 신규 브랜드 중심의 리테일 시설이 들어선다.

전체 개발 연면적은 46만㎡이며 이중 호텔은 5만8403.9㎡를 차지한다. 호텔은 2031년 개장을 목표로 한다. /허정윤 기자